

위피와 같은 국내 표준 기술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면 정보기술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디지털 지식이 강한기업 만든다

5회 '디지털경쟁력 대상' 16개업체 선정



21세기는 지식기반 시대다. 지식기반 산업은 정보력과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일어나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나에 성과가 달려 있다. 이 같은 지식기반 산업의 성패는 기업과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LG경제연구원은 "일본 전자업체를 통해 본 디지털 경쟁력의 본질" 보고서에서 디지털시대 변화에 대한 민중의 대응, IT 주도권 장악 여부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가 취약하면 디지털 시대 생존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시대 경쟁력은 연구개발(R&D) 능력, 핵심 기술 보유, 수익 저항적인 사업 집중으로 요약된다. 시장의 빠른 변화를 알아내고 시장 요구를 반영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과거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면 21세기는 핵심 사업 하나만 잘 키워도 수익을 수십 배로 거둘 수 있는 시대다.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란 명성을 듣고 있지만 안주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2010년이면 한국 디지털 가전과 철강 분야 등에서 산업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인 전망이 나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 재단은 디지털 가전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1-2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분야도 있다. 현재 MP3플레이어는 한국보다 중국이 0.5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사는 한국이 디지털 지식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외 디지털포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디지털 산업 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2005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상은 정보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디지털 기술-콘텐츠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성공 사례 경연장"인 셈이다. 각 기업들이 도입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올해 1월 24일까지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모집 부문은 △디지털 경영대상 △디지털 기술 대상 △디지털 상거래 대상 △디지털 프랜차이즈 대상 등 총 4개였으며 모두 53개 기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수상 업체는 현재 산업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서류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병행,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 토론을 거쳐 최종 16개 업체를 선정했다.

디지털 경영대상은 전자자료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등 각종 기업정보와 관련 솔루션을 도입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 혁신 등 기업 경쟁력을 도

2005 대한민국 디지털경쟁력대상 수상업체

부문	회 사	대표자	부 문	수상 구분
경	신한생명보험	한동우 보험		대상
	백산	김재우 제조		대상
영	한양디지털	전인식 전자정보통신		대상
	아이네트호스팅	신종원 전자정보통신		우수상
상	케이엠에이치	김기준 의료		우수상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수형 보험서비스		대상
개	이심네트웍스	조원필 기간건 가버		대상
	아이엔이시스템	김무일 기간건 가버		대상
기	프라이타임	백과성 전자서비스		대상
	다들소프트	양주영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우수상
솔	이텔스	이홍성 이동통신단말기		대상
	리뉴미디어	서영길 위성DMB서비스		대상
솔	이비아이솔루션	변상필 웹엔지니어링		대상
	이노비아이비즈니스	이영삼 데이터관리솔루션		우수상
솔	반도하이테크	김승래 SCM솔루션		우수상
	유니테크인포컴	김종수 기업성과관리솔루션		우수상

기업현장·경영혁신에 활용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성공 노하우' 한자리에

모한 기업에 주어진다. 올해는 신한생명보험 백산한양디지털 아이네트호스팅 케이엠에이치 등 5개 업체가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디지털 상거래 대상은 인터넷쇼핑 경제 금융 등 e비즈니스 관련 솔루션을 도입해 전자상거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제품 서비스 판매 등에서 눈에 띄는 경영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주는 상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상네트웍스 아이엔이시스템 프레이타임 다들소프트 등 5개사가 상을 받았다.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주는 디지털 기술 대상은 브이케이 테리미디어 이비아이솔루션 이노비아이비비즈니스 한도하이테크 유니테크인포컴 등 6개사가 돌아왔다. 디지털프랜차이즈 대상은 올해 수상 기업이 배출되지 않았다.

디지털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규수 한국IT전문산업협회 부회장은 "과거 일부 IT부서별 중심이었던 IT종합화 실현 전략이 올해는 기업 전반에 걸친 통합 경영전략 차원으로 확산됐다"면서 "이는 국내 기업 디지털 경영의 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회장은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업 경영 혁신과 경쟁력 재창출은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기반이므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대상" 시상식은 6일 서울 올림픽대입원홀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유주연기자



이렇게 생각한다

"SW 부가가치 제조업 3배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국회 디지털포럼 회장
서삼기 국회의원(한나라당)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2004년 전세계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55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계속돼 2008년에는 74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를 봐도 디지털 산업이 수출총액 2537억 달러 중 30.3%에 달하는 약 770억달러를 차지한다.

그중 반도체가 265억달러,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가 수출이 208억달러로 수출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SW 부문은 2003년 대비 27.9% 증가한 1억9700만달러를 달성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휴대전화 및 신소재 분야 산업을 적극 육성해 해당 분야의 일등극자로 발돋움해야 한다. 또 미개척지로

남은 SW 산업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SW 산업은 IT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별 부가가치는 62.7%로 서비스 50.1%, 제조업 27.4%에 비해 월등하다.

최근 5년 간 MS의 평균 이익률만 보더라도 47.6%로 삼성전자(15.6%)의 3배 수준에 달한다. 특히 SW 산업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 산업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 SW 산업을 점검해 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국내시장에서조차 국산 SW 비중이 18.4%에 불과하고 완성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 SW 산업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 수출 주력상품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

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인 수학이나 물리를 중요시하듯 기초산업인 SW 분야를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내 SW 분야 성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소수 S1대기업이 각종 시스템 개발사업에서 국내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영세 SW사들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기업은 종종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이에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선 대기업이 하도급 기업에 기술지원 및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우리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의 핵심자원을 지원하는 '상생전략'을 펼쳐야 한다.

디지털경영대상



회사전략 추진 상황 전직원 실시간 공유



한동우 대표

신한생명보험은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디지털 경영모형을 제시했다. 이 시스템은 회사 전략 방향을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고 회사-부서-개인 전략과 목표를 정렬함으로써 조직 전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략 추진 진척 상황을 전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목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조직과 개인의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가 보상이나 성과와 연계되도록 했다.

추진 전략에 대한 실행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추진 시스템(BSC 시스템)과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성과-역량-다면평가 시스템), 성과 중심 보상을 위해 인사시스템과 연동 운영하는 보상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한생명보험은 어려운 영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 영업과 텔레마케팅(TM),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단편한 내실경영과 경쟁력을 갖춰 국내 보험업계에서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年매출 3%이상 IT 투자



김재우 대표

98년부터 PI(Process Innovation)와 정보기술(IT)을 효율적으로 접목해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구축했다. 2003년에는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SIM(Strategic Information System) ERP로 전환해 정보체계를 한 단계 올려 놓았다.

지나해 7월부터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개설해 모든 거래처와 정보 온라인망을 연결하고 실시간 고객관리로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RTE(Real Time Enterprise)라는 원칙을 세웠다. 박산은 디지털 경영 강화를 위해 매년 전체 매출액 중 3% 이상을 IT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PC켜면 생산·재고 한눈에



전인식 대표

한양디지털은 97년부터 10년 간 장기 프로젝트로 디지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모든 사원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통해 작업한다. 모니터에는 다양한 생산·기술·품질·경영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정보를 통해 전사원이 현재 생산 실적과 품질지수, 재고현황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업무를 본다. 이는 제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 경영 합리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양디지털은 제조 공정 부문의 디지털 경영 관리를 위해 SAMS/M시스템, SIMAX OI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사·급여 관련 정보도 HRMS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인트라넷시스템을 개발해 전자결재와 부서간 업무 전달, 공유사항, 사원 요구사항을 실시간 처리 운영한다.

기술·운영부문 통합 운용



신중현 대표

지난 96년 호스팅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후 9년 동안 꾸준히 안정적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지원과 기술운영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부문을 기술운영팀으로 통합해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고객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팀과 마케팅팀을 영업마케팅팀으로 합쳐 영업 현장에서

고객 요구를 발 빠르게 수용할 것도 수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운영팀과 영업 마케팅팀 두 부서가 활발한 정보 교류뿐 아니라 전사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자체적으로 Neoihc(Neo Internet Hosting Center)라는 솔루션을 6개월에 걸쳐 개발했다. Neoihc는 기존에 이용하던 초보적 수준 인트라넷을 한층 발전시킨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그룹웨어로 업무효율 높여



김기훈 대표

2002년 5월로 출발한 설립 초기부터 그룹웨어를 바로 도입하는 등 정보시스템 이용에 적극적이었다. 유통업 위주인 사업구성 때문에 현장 중심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룹웨어 도입을 통해 해결했다. 그룹웨어는 임원진, 부서별, 개인별 비용 사용내용을 알리고 인사와 과 제고와 고과 내용을 공개 관리하도록 지원해 기업무형성 개선에 기여했다.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선 체계를 자체적으로 시스템화했다. 제안 제도를 통해 업무 개선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유기적인 업무개선 활동으로 행정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회사측은 사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업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업이 가능해지고 인-인 관계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디지털기술대상

대용량 데이터 솔루션 공급



이더 처리를 필요로 하는 BI(Business Intelligence)를 위한 데이터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 CRM, 데이터마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1년 설립된 뒤 금융권, 정부기관, 일반기업에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배치처리, 데이터 이행과 초고속 ETL(Extract Transformation Load) 솔루션인 TeraStreamTM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TeraStreamTM은 대량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BI(Business Intelligence)를 위한 데이터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 CRM, 데이터마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상 대표

지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국내 솔루션 업체와 협력해 통합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구축하고 각 제품 기능과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방침이다. 외환·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권, 통계청·국세청·재정경제부·심사청·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LG텔레콤·KTF·하나텔레콤 등 통신 회사가 이 회사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 성과관리 SW 독보적



'실시간 기업(RTE-Real Time Enterprise) 환경 구현을 위한 통합솔루션 제공'이라는 목표를 비즈즈 프로젝트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와 기업성과관



김원섭 공동대표

과 산출, 보상 연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성과관리 워크 플로, 평가 모델로 구성돼 있다. 유니테크 인포콤은 기업 내부 통제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된 솔루션을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앞으로 기업 성과관리의 총체적인 요소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심사평

“디지털=경쟁력 눈으로 확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업 경영혁신과 경쟁력 제고들은 우리 기업과 산업, 국가경쟁력의 생존전략이며 희망이고 약속이다. 그러나 지구촌이 공경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생존전략을 어떻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해나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이다.



김규수 심사위원장

첫째, 일선 경영 현장에서 디지털 경영을 위한 기업의 정보화 의욕과 실천 전략,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정보기술(IT) 부서 위주로 추진되던 전통적 정보화 사업이 이제는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기업 전반의 기능과 조직이 참여해 디지털화한 통합 경영전략 차원에서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다.

둘째, 업종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비교우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통합된 디지털 경영체계를 갖춘

성공 모델 등등과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창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통합된 디지털 경영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론과 기술이 등장했다. 개념 수준에 머물렀던 실시간 기업경영전략으로 RTE(Real Time Enterprise)가 구체적인 모델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와 발전된 현상은 결과적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산업이나 이를 이용해 디지털 경영을 실현하는 모든 기업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은 디지털 경영을 모색하는 기업이 좋은 벤치마크 모델이 될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대상 심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서류심사와 설명회,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격찬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 평가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